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에 바란다’ 설문조사

“사회복지시설 예산 확대 지원 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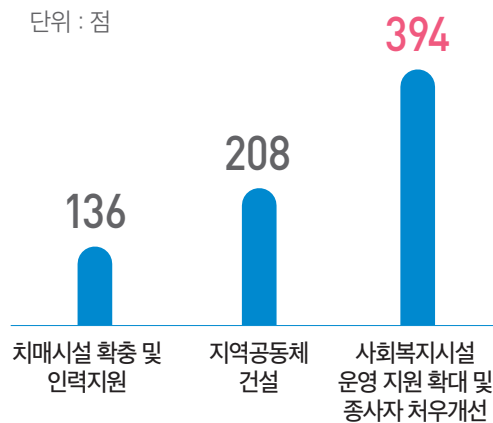
민선 7기 원희룡 도정 출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책위원회(위원장 양창오·이하 정책위원회)가 사회복지현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원 도정에 바라는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싣는다.<편집자 주>

설문조사는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시설·단체장 32명(13.7%), 상위관리자급(사무국장, 부장) 26명(11.2%), 중간관리자급(과장, 팀장) 56명(24.0%), 실무자급 119명(51.1%) 등 총 233명(무응답 제외)이 응답했다.

설문 결과 원 지사가 제시한 ‘200개 실천약속’ 중 사회복지공약(총 37개 중 보건·보육분야 제외)에서 가장 시급하게 실천되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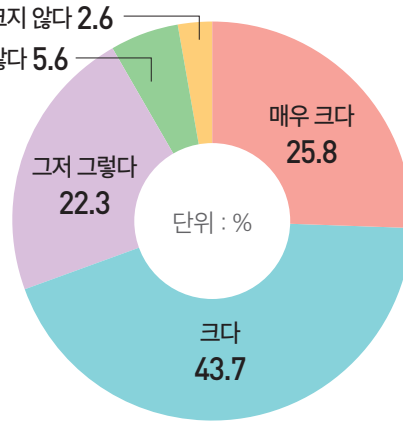
가장 시급하게 실천되어야 할 과제

단위 : 점



원희룡 도정에 대한 기대 수준

매우 크지 않다 2.6
크지 않다 5.6



다(충분히+다소)라고 응답한 비율이 45.5%, ‘반영되지 못했다’가 40.8%, ‘잘 모르겠다’가 13.7%로 나타났다.

민선 7기 원 도정에 대한 기대 부분에서는 ‘기대가 크다’ (매우 크다+크다)라는 응답이 69.5%로 조사됐으며 ‘민선 7기 임기 중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4.7%가 ‘확대될 것이다’ (매우 그렇다+그렇다)로 응답해 민선 7기 원 도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관련기사 7면>

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책위원회, 7월 16~19일 실시 사회복지현장 근무자 233명 응답… 원 도정 기대감 높아

할 과제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는 응답이 39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지역공동체 건설’이 208점, ‘치매시설 확충 및 인력지원’이 136점으로 나타났다.

원 도정에 바라는 사항에 대한 다중응답분석 결과 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등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 4년 간(2014. 4 ~ 2018. 6) 제주지역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나아졌다 (매우+다소)’라고 응답한 비율이 66.5%로 가장 많았고 ‘후퇴했다’가 17.2%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현장 의견 반영 정도에서는 ‘반영되었

통계분석 자료는 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통계분석 : 김도영교수(제주국제대학교))

<4인 가구 기준>

내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461만 3536원

복지부, 지난달 13일 중앙생활보장위 심의·의결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3일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61만3536원으로 올해 451만9202원 대비 2.09% 인상됐다.

또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

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8만4000원, 의료급여 184만5000원, 주거급여 203만원, 교육급여 230만

7000원 이하 가구다.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에서 44%로 인상됐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올해 대비 5.0~9.4% 인상했다.

고령의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지원한다.

지면소개

- 종합 3면
양성평등주간 기념 한마음축제 성황
- 사회복지소식 4면
2018 JEJU 전국장애인 연극제 공연
- 오피니언 6면
시론·칼럼·기고
- 기획 7면
도합의회 사회복지정책위원회 ‘사회복지 좌담회’



나눔을 생각하는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참가자 모집

2018 제주 나눔 대축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그림을 통해 어린이들이 ‘나눔’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2018 제주 나눔대축제」 현장에서 개최되는 ‘나눔을 생각하는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일 시 : 2018. 9. 8 (11:00~16:00) · 신청기간 : 2018. 8. 1~31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소정양식)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 신청서는 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 출 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Fax. 702-3383, E-mail. jejubokji@hanmail.net)

고태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취임 인터뷰

“복지 체감도 향상 위해 ‘제주형 복지 기준선’ 마련 최선”

❶ 취임 소감은?

아라동의 첫 도의원으로서 믿고 선택해주심에 아라동민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으로 선출돼 제주도의 보건의료, 복지, 안전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도민이 행복한 복지제주,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제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❷ 위원회 운영 방향은?

복지예산이 1조원에 이르고 다양한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도민들의 복지체감도는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중복서비스와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더불어 보편적 복지정책을 발굴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❸ 제주 사회복지 문제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제주의 외적 확대는 주택가격 상승, 기초연금 탈락, 양극화 심화 등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삶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고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주형 복지 기준선’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는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

제10대 의회에서 ‘제주형 복지 기준선’ 마련을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추진이 되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 2019년에는 TF구성 등을 통해 복지기준선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❹ 사회복지예산규모 확대를 위한 방안은?

제주형 복지기준선을 마련하여 복지기준선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



도록 노력하겠다.

제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장애인, 노인, 노숙자, 여성폭력 피해자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지원주택 도입, 사회적 돌봄(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확

충, 의료보장 확대 등 도민의 삶에서 가장 힘든 부분을 찾아서 정책화 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또한, 정책을 수행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사자들의 처우와 관련해서도 세심히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지원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 나가겠다.

❺ 사회복지현장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보다 복지 현장과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기관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 <대담 : 김성건 사무국장·정리 : 김승지 기자>

지적발달장애인의 날 기념식 가져



지적발달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2018 지적발달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제20회 권익복지대회’가 지난달 6일 제주시민회관에서 개최됐다.<사진>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협회장 문상익)가 주최한 이날 대회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고 지역 사회와 교

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통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적발달장애인 권리 선언문 낭독을 비롯해 유공자에 대한 시상 등에 이어 레크리에이션과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연이 진행됐다.

도 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지적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 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복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지 리더 양성 아카데미’를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 지역의 복지 문제를 지역 내에서 해결하고자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네트워크 조직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사회복지의 이해와 마인드 함양, 복지사각지대 발굴방법, 타시도 우수사례, 민·관 협력 주민참여 성공사례 등이다.

한편, 읍면동 협의체는 2016년 1월에 구성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고 있으며 2018년 6월 현재 주요 실적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1,923건, 복지자원 발굴 1,387건, 서비스 지원 및 연계 14,555건의 성과를 거뒀다.

본지 고현수 편집위원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



고현수 편집위원(제주도의회의원)이 제주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2019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예결특위 위원은 각 상임위원으로 2명씩 추천하고, 의장 추천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7월 기탁 현황

▲금강축산유통=축산물249kg	▲유진상사=오뚜기 식품3,371개
▲(주)쿠팡스토어 제주이도점=제빵336봉	▲강순옥님=생활용품8개
▲금강수산물유통=수산물41kg	▲나눔베이커리=제빵176봉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277모, 숙주나물136봉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277모, 숙주나물136봉
▲던킨도너츠 제주외도점=도너츠71개	▲동원F&B제주지점=동원 식품1,465개
▲미인빵=빵149봉	▲비엔누아즈=제빵388봉
▲이든이네=건어물18kg	▲정필이오메기떡=떡280개
▲제주보리촌=보리빵450개	▲참새방앗간=떡776개
▲캣어클락=제빵18봉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018년 6월 후원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 가 결 연 후 원	240,000	0
난 처 병 환 아 후 원	40,000	2,000,000
자 원 봉 사 후 원	380,000	380,000
복 지 사 업 후 원	1,030,000	1,593,770
푸 드 마 켓 후 원	3,115,000	221,06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치환

■ 등록번호 : 제주 라 01010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 070)4726-8826

■ 편집인 : 고봉식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편집기자 : 김승지

■ 편집디자인 : 디자인리더제주

양성평등주간 기념 한마음축제 성황

제주도, 지난달 7일 제주시청에서 열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7일 제주시청에서 2018년 양성평등주간(매년 7월 1~7일)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다.<사진>

'느영나영 양성평등 세상! 혼디하는 양성평등 제주'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기념식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기관·단체장,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축하공연을 비롯해 축하 메세지 영상, 기념식, 유공자 표창, 도민 1분 발언, 양성평등 인식개선 홍보 등이 열렸다.

원희룡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여성과 남성은 다른 것이지 차별이 있는 게 아니



다.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서도 서로 협력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남성의 특성과 여성의 특성이 잘 공존하면서 발휘되는 그런 사회가 될 때 더욱더 풍부하고 질적인 면에서도 더 깊이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라며 "제주도가 성평등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생활개선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문현순, 김광익 부부가 평등부부상을 받는 등 18명이 제주시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또 문화공연과 함께 가족들이 참여하는 느영나영 장터, 청년 및 청소년 베틀시장, 양성평등 홍보마당, 거리행진, 여성폭력추방 캠페인 등이 펼쳐졌다.

장애인 원예작업장 유리온실 개소

제주지역 장애인들이 쾌적한 유리온실에서 원예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달 4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배움터'에서 장애인과 가족, 유관기관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예작업장인 유리온실을 개소했다.<사진>

이날 개소한 유리온실은 장애인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 4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1층, 279㎡ 규모로 조성됐다.

특히 원예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 14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최초로 원예재배의 특성과 온도·습도를 자동으로 맞추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쾌적한 근무환경을 통해 장애인들의 직업 적응 능력이 향상되길 기대하고 있다"라며 "제주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환경을 개선해 행복한 일터 조성에 앞장섬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견인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ssn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

아나바다 장터의 따뜻한 희망 나눔

웅기장이어린이집, 푸드뱅크 물품 기부



제주시 도평동 소재 웅기장이어린이집(원장 양정열)은 지난달 12일 어린이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운영하는 제주광역푸드뱅크에 65만원 상당 물품(라면 1,360개)을

기부했다.<사진>

이날 이웃사랑 물품은 웅기장이어린이집 원아 181명과 학부모, 교사 등이 물품 및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통해 운영한 '아나바다 장터'의 수익금 전액으로 마련한 것

이다.

양정열 원장은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웅기장이 가족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아이들이 기부에 참여하게 됐고, 자신의 노력이 주변의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끼며 친구,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 나눔에 대해 소통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어 뜻깊다"고 전했다.

기부 물품은 독거노인, 긴급지원대상자 등 도내 기초푸드뱅크 및 기초푸드마켓 이용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사회공헌 아카데미 프로그램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주최하고 제주사회공헌 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제주 사회공헌 아카데미' 7월 강의가 지난달 20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실시됐다.<사진>

참가자 및 네트워크 참여기업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여한 이번 강의에는 김민석 LG전자 CSR 책임팀장이 강사로 나서 'SDGs 달성에 기여하는 지역기반 사회공헌'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아카데미 참석자는 "CSR로 유명한 강사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아카데미를 통해 기업 사회공헌에 대해 전문지식을 쌓고 네트워크 참여기업과 프로젝트 실행에 참여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웃사랑물품 기부 '훈훈'

국제로타리 3662지구 제주중부로타리클럽(회장 김유탉) 청년동우회(회장 김형남) 회원은 지난달 10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운영하는 제주광역푸드뱅크 기부식품 물류센터를 방문해 이웃사랑물품 (쌀 1,000kg)을 기부했다.<사진>

이날 기부된 물품은 청년동우회 회원이 봉사와 나눔을 통해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더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김형남 회장은 "지역사회에 봉사와 나눔을 통해 이웃을 섬기고자 회원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 기부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십시일반 모아 나눔 실천해요"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회장 강순희)는 지난달 7일 김만덕기념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

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운영하는 제주광역푸드뱅크에 의류, 생활용품 등 이웃사랑 물품을 기부했다.<사진>

이날 기부 물품은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설립 46주년 기념 전도 지도자대회 및 제22기 여성활동가 아카데미 개최에 앞서 회원 일동이 도내 도움

이 필요한 이웃과 나눔으로 함께 하고자 십시일반 마련한 것이다.

강순희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회원이 자발적 힘을 모아 기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이웃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2018 JEJU 전국장애인 연극제 공연

도내·외 장애인 극단 4개팀 참가



극단 서툰사람들 '바다 한가운데에서' 공연 모습

‘2018 JEJU 전국장애인 연극제’가 지난달 9일부터 12일까지 제주도내·외 장애인극단 4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소장 최희순)에서 주관한 이번 연극제는 극단 서툰사람들(제주시)의 ‘바다 한가운데에서’를 시작으로 극단 햇빛존(진해) ‘뛰어라 뛰봉’, 극단 도란토닥(서귀포)의 ‘크리스마스에 삼십

만원을 만날 확률’, 극단 애인(서울)의 ‘한달이랑 방에서 나오기만 해’의 공연으로 진행됐다.

극단 서툰사람들의 ‘바다 한가운데에서’는 인류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다뤘다. 이어 극단 햇빛존의 ‘뛰어라 뛰봉’은 영화 맨발의 기봉이를 각색한 작품으로 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장애가족의 애환과 사랑 담았다.

극단 도란토닥의 ‘크리스마스에 삼십만원을 만날 확률’은 가족의 정을 다시 한번 되새길수 있는 작품이다. 극단 애인의 ‘한달이랑 방에서 나오기만 해’는 극단 애인 단원의 작품으로 입체낭독공연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시도했다.

최희순 소장은 “연극이란 예술장르는 문학, 음악, 미술, 연기, 의상 등 여러 분야가 망라된 종합예술인만큼 하나의 작품을 올리 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각기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만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문화예술 인력들이 생겨나고 경험을 쌓게 된다”고 말했다.

“장애인 문화예술로 소통해요”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제 주도협회(이사장 이순구)는 지난달 6일 국립제주박물관 강당에서 도내 장애인 12단체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 제7회 제주장애인 문화예술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번 문화예술제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문화예술의 한 마당을 제공해 자신들의 재능을 문화예술로 표현하는 등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문화예술제는 총 12팀이 참가해 기악과 중창, 합창, 난타공연, 연극 등의 다양한 경연을 펼쳤다.

대상은 합창을 한 ‘서귀포시장애인복지관’ 팀이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우누스트리오’와 ‘희망나래일터’, ‘제주 장애인 피아애타당’ 등 3팀이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서귀포시장애인복지관’팀은 오는 11월에 열리는 전국중앙장애인 합창대회 출전권을 부여받아 모든 비용을 지원받는다.

행복한 노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지난달 20일 개관식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관장 이은경) 개관식은 지난달 20일 개최됐다.<사진>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는 지역내 홀로 사는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관식에는 허법률 서귀포시장 직무대리 부시장과 윤준광·김용범·이경용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날 개관식에는 홀

로 사는 노인 10명에게 그동안의 삶을 공로하고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담아 꽃다발을 증정하는 시간도 가졌다.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는 홀로사는 노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이다.

신규사업으로는 상담사례관리사업, 정서적 지원사업을 추가 확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장애청소년 IT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과 KT제주고객본부(본부장 양창식)는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제12회 KT배 전도장애청소년 IT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진대회는 장애청소년들이 정보화 기술을 습득하고, 정보를 활용하는 등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참가 신청은 복지관 홈페이지(www.jejurehab.or.kr)와 팩스(702-0294), 이메일(jejurehab@gmail.com) 또는 방문해 개별 접수하거나 공문을 통해 단체 접수하면 된다.

대회는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뉘어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된다.

예선은 9월 6일(목)에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예선결과 중등·고등부 고득점자 각각 20명은 9월 21일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702-0295, 문화지원팀)로 문의하면 된다.

정신장애인 작품세계 엿본다

정신요양시설 무지개마을은 오는 7~10일 제주도에에서 조현병으로 정신장애인들이 쓴 시를 모은 시화전 ‘무지개연가’를 개최한다.

무지개연가는 2013년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봉사동아리 ‘동행’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도록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시화전 무지개연가는 11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7월에 제주시청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두차례 실시했으며 오는 8월 7~10일 제주도청 로비, 9월 탐라문화광장, 10월 조천체육관, 11월 제주오일시장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화전 ‘무지개연가’와 시집 출판기념 북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도자활센터, 희망키움통장Ⅱ 수령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효철)는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한 가구 중 지난 2015년 6월 가입한 32가구가 3년 만기 도래 돼 만기 저축금 7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10일 전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본인 이 매월 10만원씩 총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3년 후 720만원(이자 별도)의 목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가입 자격은 2018년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중 일하는 가구로, 가입기간 동안

4회의 교육과 사례관리를 통해 자립의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정부지원금은 주택구입 및 임대료,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비, 창업자금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모집기간 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도자료 접수 안내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도내 사회복지소식 보도자료를 매달 22일까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생활게시판 “알림” - 보도자료’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 초/식/마/당

(무순)

장애인 파크골프대회 개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강석봉)은 지난달 7일 도내 장애인파크클럽 동호회원과 장애인단체 및 시설 선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탐라 장애인종합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를 통해 지역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장애인 생활 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결혼이주여성 프로그램 개강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두호) 구좌읍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는 지난 6월 결혼이주여성 가족과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통기타 동아리, 다문화 책놀이 교실을 각각 개강했다.

이번 사업은 구좌사랑 희망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다문화가족의 유대관계 증진 및 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마련되었다.

희망나래 가족 한마당 성황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이사장 최영열)는 지난달 14일 제주시 시민회관에서 '우리가 함께하면 이 길이 꽃길'이라는 주제로 2018년도 희망나래가족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희망나래 후원자, 자원봉사자, 조합원, 장애인가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나래활동센터 풍물패의 공연, 명랑 운동회, 경품추첨 등 다양한 콘텐츠들로 채워졌다.

업무 협약 체결



제주몽생이그룹홈-제주소나이그룹홈(대표 김완숙)과 한국재활심리치료센터(원장 김상훈)는 지난달 2일 그룹홈 공동주관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심리치료센터는 심리사업과 관련, 그룹홈과 상호 업무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심리서비스 사업과 관련한 심리적인 응급·위기 상황에 대해 그룹홈의 전문적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 지원 키로했다.

하계수련회 행사 마련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지난달 18일 제주렛츠런파크에서 거주장애인 가족들과 직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하는 하계수련회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주마사회에서 제주청년피엔씨가 운영하는 '포니 워터파크' 물놀이장 입장료 및 장소임대를 무료로 제공 받는 등 행복한 시간으로 마련됐다.

성공적인 노후생활 지원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안원식)은 제주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지난 3월부터 제주시 서부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교육문화사업 'VIVA청춘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다.

'VIVA청춘예술단'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해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켜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극복대상 수상 영예



정혜재활원에 거주하고 있는 강은희씨(34·여)는 지난달 6일 제주시민회관에서 열린 '2018 지적발달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극복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강 씨는 2005년 정혜재활원에 입소해 본인보다 어려운 이용자들을 돌봐주고 긍정적으로 생활했다. 또, 직업재활시설 에코소랑에서 한달만에 정직원인 되는 등 타의 모범이 되어 장애극복대상을 수상했다.

입소 청소년 가족캠프 진행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소장 윤인노)는 지난달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 입소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가족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는 빅볼 체험과 함께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물놀이, 도두봉 탐방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고 느끼는 시간을 가졌으며 영화 관람으로 캠프 마무리를 하며 입소청소년과 실무자간에 유대감을 형성했다.

여름방학 캠프 참여



비전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명훈)는 지난달 30일부터 8월 1일까지 한림블루하와이리조트에서 프로그램 참여 학생 39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마사회 지원 사업 '렛츠런파크와 함께하는 시원한 여름방학 프로그램' 캠프를 실시했다.

이날 캠프는 요양원 봉사활동을 위한 공연 준비와 수영장 물놀이 등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한라도서관(관장 강수복)은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 국제가정문화원에서 도내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전래동화와 세계 여러 나라 전래동화를 통해 그 안에서 보편성을 이해하고, 다른 문화의 존중과 사회적 관계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구강관리 신체활동 교육 전개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용학)는 지난달 2일부터 9월 11일까지 경로당 등 21곳 940명 어르신들에게 구강관리와 신체활동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구강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구강검진 상담, 시린이 예방 불소도포, 틀니세척, 구강위생용품 사용법과 만65세 이상 보건소 무료 스케일링 안내와 어르신 건강 체조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찾아가는 학대예방교육 실시



장애인거주시설 가롤로의집(원장 서영숙)은 지난 6월 29일 이용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너! 나! 소중한 우리'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이용인들이 자신에 대한 표현과 함께 하는 이용인에 대해 배려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시론

노벨문학상 받을 우리 아이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마음 깊은 곳에서 온몸 구석구석까지 너를 사랑해!’

요즘 아이들 키우는 엄마라면 한 번 들어 봤을 테다. 미국의 언론인 로제티 슈스탁이 쓴 유아동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의 한 대목이다. ‘사랑해’라는 석 자로는 부모의 마음을 다 담아냄에 부족한가. 사랑한단 표현이 꼬리를 물고 나오는 이 책. 2007년 이후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기록되고 있다.

책 보다 영상매체 노출 커

TV나 게임 같은 자극적인 매체보다는 활자 매체에 담긴 사랑과 속정을 아이들에게 전하려는 엄마들 마음이 빚어낸 결과다.

한데 희망사항일 뿐, 이 같은 엄마들 바람과는 달리 흘러가는 게 현실이다. 르면 ‘어린이 독서 및 도서관 이용 현황’을 보면, TV보기 32.0%, 게임하기 17.6%, 인터넷 하기 9.1%, 책읽기 26.4%다. 아이들이 책을 읽

는 시간은 TV나 게임, 인터넷 같은 책 이외의 매체를 이용하는 시간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아이들이 책보다 TV나 영화 같은 영상 매체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방증이다.

초등학생 때의 독서는 한 사람의 정신적·지적 성장뿐 아니라 정서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어릴 때의 독서습관은 평생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윤택한 삶을 좌우한다.

어느 도쿄 주재기자가 쓴 기사를 읽었던 게 지워지지 않는다. 가랑비 내리는 도심 횡단보도 앞, 신호를 기다리며 한 남자가 우산을 받쳐 들었는데, 다른 한 손엔 책을 펴고 있더라는 것. 불과 몇 분의 짧은 시간. 그것도 우중에 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 감동 받았다는 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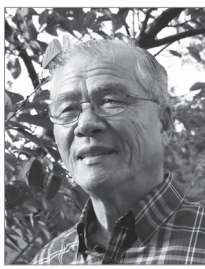
간과할 일이 아니다. 세계에서 독서열이 제일 높다는 일본 국민이다. 아시아권에서 노벨문학상을 받은 것은 두 나라뿐이다. 시성 타고르가 1913년에,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1968년에, 또 오에겐자부로가 1994년에. 그리고 보니 인도가 한 번, 일본이

두 번이다. 거명만 돼 올 뿐 우리나라는 아직 없다. 올림픽과 월드컵 개최국이면서도 노벨문학상을 받은 사실이 없는 나라. 일본이 두 번씩이나 받았는데, 낮은 일이다.

어른 먼저 독서 시작 해야

역사적 배경에서 축구 한일전은 정신력 싸움이다. 역대 전적에서 우리가 훨씬 앞선다. 한데 노벨문학상은 2-0이다. 독서에서 뒤지고 있다. 칠레나 페루 같은 나라도 받은 상이다.

노벨문학상을 받을 아이들이 다. 리모컨 대신 책을 들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어른이 먼저 읽을 일이다.



김길웅

편집위원·칼럼니스트

기고

혁신 프로젝트 “효자손아! 어르신을 부탁해”



진상민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신문이나 방송의 뉴스를 보다 보면 매해 주택가에서 홀로 거주하다 사망해 상당한 시간이 지나 발견되었다고 하는 기사가 종종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복지 담당 공무원이 발견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사망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 악취 등으로 주변의 신고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가족이 없어 무연고로 화장 처리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고독사는 현대사회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독사

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2010명으로 2013년에 비해 57% 가량 늘었다고 한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무연고 사망자수의 증가 폭은 더욱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라동에서는 주민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내 학교를 추진 주체로 하여 홀몸 어르신에 대한 안전 돌봄망을 구축하고자 홀몸 어르신 손자녀 맺기 프로젝트 ‘효자손아! 어르신을 부탁해!’를 2018년도 열린 혁신 중점추진과제로 정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보다 더 나은 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라동주민센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희망 노인가구를 선정하고 지역내 학교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상호 협약을 체결,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효자손 봉사단’을 구성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효자손 봉사단은 2인 1조로 구성돼 어르신 1명당 2교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어르신 말벗 해드리기, 집안청소, 식사 보조 등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 학생들에게는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냄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르신을 이해하고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홀몸 어르신에게는 가족이라는 느낌으로 손자녀를 대하는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사회는 현대화되면서 고령화와 핵가족화라는 문제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에서 모두 해결할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웃이 가족같이 생활하는 이웃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 가치 혁신은 어느 한 곳이 아닌 모두가 하나 되어 추진할 때 만들어 지는 것이다.

칼럼

산림복지사업 적극 운영해야

사회복지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다. 산림을 활용하는 복지서비스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사회 속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복지정책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복지정책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산림청은 최근 올해부터 오는 22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제1차 산림복지진흥계획을 발표했다. 이의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산림정책을 생태적 관점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의 건강증진 등을 위해 산림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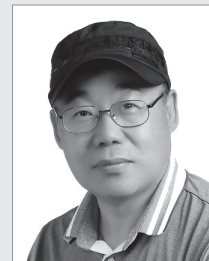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잘 가꿔놓은 산림자원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 산야는 6·25전쟁까지만 해도 대부분 민둥산이었다. 산림으로부터 많은 생산물을 채취해 사용하거나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되는 일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60~70년대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산림녹화사업을 펼쳤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은 전 국토의 65%에 이를 정도로 울창한 산림지대를 이루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산림조성은 세계에서 인정하는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2019년도 녹색자금 210억 공모

이렇게 조성된 산림은 50년이 지난 현재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태교·유아에서부터 청소년·노인, 그리고 소외계층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정책이 산림으로부터 마련되고 있다. 산림을 국민의 쉼터 및 치유의 자원으로 재창출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오는 2일까지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210억 원 규모의 ‘2019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모사업을 보면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을 비롯해 취약계층을 위한 숲체험·교육사업과 생활속 정원돌봄사업 등 5개 분야이다. 그 중에 숲체험·교육사업은 산림자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정서안정과 신체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복지수요에 걸맞는 다양한 산림복지사업들이 발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제주는 산림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오름과 숲길과 올레길이 하나의 세트장처럼 연결돼 있다. 산림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제주복지계도 보다 적극적으로 산림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산림과 연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산림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창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영조

산림치유지도사

도협의회 사회복지정책위원회 주최, 도내 사회복지 전문가 초청 좌담회

“복지공약 이행 여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사회복지현장 근무자 233명이 응답한 설문결과 지난 4년간 사회복지현장의 환경이 나아졌다는 의견과 민선 7기 도정에 대한 기대가 크게 나타난 점에 대해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석왕 원장은 “지난 4년 동안 나아졌다고 보다는 선거기간 동안 제시된 공약에 대한 기대감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고 한 반면 안명희 회장은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의외”라고 하고 “5년 전 또는 10년 전 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아졌다는 의견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경미 의원은 “지속적으로 요구한 종사자 처우개선의 효과가 반영된 의견일 수도 있다”고 하고 “도민복지 차원에서의 복지환경 변화의 정도에 대해 묻는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양창오 위원장은 “나아졌다는 의견들은 실무자급에서 가장 높고 기관장급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생각하는 환경변화의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고경애 원장은 “도의회에 진출한 사회복지현장의 전문가들의 역할로 인해 민선 7기 원 도정의 복지환경도 좋아질 것이라는 의회에 대한 기대도 담겨 있는 결과”라는 해석도 내놓았다.

민선 7기 원 도정에 대한 사회복지현장의 높은 기대가 기대로만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데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김경미 의원은 “당초 제시된 복지부서 조직개편안만 보더라도 원 도정이 현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게 사실”이라면서 “기대만큼의 실천력을 키워주기 위해 현장에서 더욱 더 협치를 강조하고 우리가 감시자, 조연자로서 역할을 해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경애 원장은 “원 도정에서도 현장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건강한 외압으로 받아들여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지사의 공약이 제대로 다듬어지고 실천돼야 할 것이라는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책위원회(위원장 양창오)는 민선 7기 원회령 도정에 대한 기대 등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의 해석과 앞으로의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문현주 교수의 진행으로 지난 7월 27일 도내 전문가 6인을 초청하여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실천력 강화 위한 현장 협치 중요...감시자·조연자 역할 필요 공약 실천계획 단계부터 4년 내내 달성 결과 정리 발표해야



사회 문현주 교수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고경애 원장
(소망요양원)



김경미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안명희 회장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



양창오 위원장
(도협의회 사회복지정책위원회)



정석왕 원장
(제주장애인요양원)

정석왕 원장은 “언론 등을 통해 발표된 공약을 보고 선택을 했는데 정작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알기 힘들다”며 “원지사의 복지공약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고경애 원장은 “유권자들이 이해한 공약내용과 공약실천위원회 등에서 확

정되는 공약내용이 180도 바뀌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하고 “현장에서 정확하게 공약이행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런 작업이 공약 실천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안명희 회장은 “아동·청소년복지 분야도 공약제목만 보면 기대가 컸는데 막상 공약

실천위원회에서 논의되며 역행하는 과정을 체험했다”고 하고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실천계획 단계부터 4년 내내 지속적으로 공약이행에 대한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양창오 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해 나갈 필요를 느낀다”며 “공약실천위원회에서 논의된 공약사항이 확정되면 현장에서 평가하고 보안을 제시하는 노력으로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 도정에 대해 바라는 점에 대한 개방형 질문 결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이 1순위로 선정되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현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이기 때문에 예견된 결과라고 하면서도 이제는 도민복지에 대한 큰 틀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정석왕 원장은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는 현실적인 요구”라고 하고 “처우가 개선되는 만큼 사회복지종사자의 사회적 책무 또한 뒤따라야 할 것이고, 지금 이 시기에는 향후 4년간의 복지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공약에 대한 점검과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양창오 위원장은 “사회복지현장에서도 도민 눈높이에 맞는 복지정책과 수준을 요구해야 할 시기”라고 하고 “제주지역 사회복지현황 또는 수준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서 어떤 분야의 복지를 어떤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명희 회장은 “보육이나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약들은 모두 투표권이 있는 양육자를 위한 공약”이라며 “당사자의 소리를 담은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경미 의원은 “제주형 복지기준선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한다”면서 “복지기준선이 마련되면 복지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마련되고 복지체감도에 대한 측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제안했다.

<정리 - 김성건 사무국장(도협의회 사회복지정책위원회 간사)>



포용적 복지로 제주의 희망을 밝히다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2018 제주 나눔 대축제

일시 | 2018. 9. 8(토) 10:00~17:00
장소 | 제주국제대학교 운동장

❁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 일시: 2018. 9. 8(토) 11:00
- 축하공연, 사회복지유공자 시상식, 기념사,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 다함께 하는 다짐 등
- ※ 기념식에 참가하시는 분께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 2018 제주 나눔 대축제

- 일시: 2018. 9. 8(토) 10:00 ~ 17:00

※ 나눔실천행사

- 500인분 비빔밥 나누기 '삼춘 밥먹영 갑싸'
- '나눔상자 만들기'
- '게임으로 즐기는 나눔'

※ 상설부스 운영

- 나눔체험마당, 나눔홍보마당
-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나눔장터'
- 나눔도서관(도서기부, 교환, 무료배부 등)

※ 부대행사 코너

- 나눔을 생각하는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 드론, 모형항공기, 프라모델, RC자동차 경진대회 및 체험

※ 학생자원봉사 인증

- 행사기간 중 축제 모니터링단 운영에 참여하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에게는 '사회복지자원봉사 2시간을 인증'해 드립니다.

주최: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주관: **SSN**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